

“책은 평화와 진보에 봉사한다”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 스케치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開幕메시지

제7회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의 참가자와 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기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도서는 여러 민족들 사이의 믿음직한 교제수단이었습니다. 도서는 서로서로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가르쳤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올바르게 평가하며 惡과 善간의 투쟁 속에서, 허위와 진실 간의 투쟁 속에서, 무분별과 이성 간의 투쟁 속에서 도덕적 선택을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 발전의 역사적 경험을 축적하고 여러 세대들의 기대와 희망을 모으면서 도서는 세계를 개조하고 여러 민족들과 세계관들의 사람들을 접근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나라들과 여러 민족들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확립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사고는 모순되고 있지만, 그러나 상호연관된 우리 세계의 시야를 넓히고 전인류적 가치들의 우선권을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주며 문명발전의 새로운 전망들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핵대결로부터 여러 민족들을 구제하고 ‘냉전’의 판에 박힌 논리들을 던져버리고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들을 인도주의화한 연후에, 단지 우리의 공동노력에 의해서만 오늘날 인류 앞에 서 있는 과제들의 해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소비에트 인민들은 개방성과 공개성에 의지하는 폭넓은 민주주의적 토대 위에서 사회생활의 전영역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에 따른 창조작업에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자신과 주변세계에 대한 우리의 오늘날 견해, 우리의 노력과 의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개성의 정신적 풍요와 고상화에서의 항구적인 역할은 도서에 속합니다. 이것은 도서 저자들, 출판인들, 인쇄인들 등, 삶의 길을 도서에 부여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막중한 도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도서 광장이 국제 도서교환의 향후 발전, 정신적 가치들의 고상화, 진리, 정의, 평화 그리고 진보의 이상들의 주장을 촉진시키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의 참가자와 손님 여러분에게 성공적이고 유익한 사업을 기원합니다.

엠. 고르바초프



- ① ‘책은 평화와 진보에 봉사한다’는 주제로 열린 제7회 모스크바 국제도서박람회 (9월 12일~18일) 개막식 광경. 박람회조직위원장 니콜라이 에피모프가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 ② 국제도서박람회가 열린 국민경제발전전람관의 정문. 이곳은 서울의 무역전시관과 같은 상설전시관이다. MIBF(모스크바 인터내셔널 북페어)라는 세련된 레터링이 인상적이다.
- ③ 박람회장 전경. 원래는 동구권 국가들만이 참가하는 책의 견본시였으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자유진영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 전세계 64개국에서 2천여 출판사가 참가했다.



- ④소련인 관람객으로 붐비는 韓國館. 소련인들은 특히 우리의 어린이책을 비롯, 태권도·요리·자수·꽃꽂이책에 관심을 보였으며, 과학기술도서를 찾는 관람객도 많았다.
- ⑤소련의 한 어린이와 主婦가 한국의 그림동화책들을 흥미있게 살펴보고 있다.
- ⑥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서점인 '모스크바 책의 집' 내부. 1~2층을 합쳐 약500평의 넓이인데, 진열된 책은 의외로 빈약했다.
- ⑦번화기에 자리잡은 '모스크바 책의 집'. 거리는 비교적 활기에 차 있었다.
- ⑧박람회장 밖에 좌판을 벌여놓고 책을 파는 자동차 서점. 주로 관광객내 책자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사진 · 李起雄 (영화당 대표)

